

# SR출범 1년… 코레일과 통합, 국감서 탄력 받을까

지난해부터 與野 ‘통합’ 한목소리  
연 260억 불필요한 중복비용 발생  
통합 연구용역 발주 등 추진 가속도



철도의 양대 산맥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국감서부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데다, 남북철도복원과 맞물려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면 이후 철도 통합이 본격화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9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업계에선 이번 국감에서도 코레일·SR 통합을 촉구하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의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과제다. 여야의 의견도 일치해 왔다. SR의 개통으로 코레일과의 경쟁체제가 형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우려에서다.

SR은 지난 2016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개통했다. 이후 코레일이 적자 전환돼 일반 철도에 대한 교차보조가 약화되고, 운행사 분리로 연간 약 260억 원의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국감에서 이런 이유로 통합을 촉구하자, 당시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SR이 출범한지 1년이 되는 12월부터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오영식 신임 코레일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SR과의 통합’을 내놓고, 정부가 지난 4월 철도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8월엔 연구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도 출범 했다.

하지만 SR 측과 일부 이용객 등의 반대

로 추진이 답보상태다. 최근 SR 노조 측은 코레일과의 통합 추진에 대해 “코레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용자도 가격과 서비스 개선 등 분리운영에 순기능이 있다면 통합에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까지 가세해 혼란만 가중했다.

국토부는 최근 KTX 차량을 SR에 임대하도록 코레일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수서발 고속철도 기존 운행관련 검토 지시’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SRT의 기존 운행이 가능하도록 코레일은 KTX 차량의 SR 임대방안을, SR에게는 차량수급 및 운영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은 “경쟁사인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빼서 SR의 운행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며 “SRT가 기존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코레일과의 통합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올해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철도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코레일·SR 철도 통합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철도산업 구조 평가 협의회까지 출범해 지난해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와 비교해 한반도 분위기가 훈훈하게 바뀐 가운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박홍수 사회공공연구원 의원은 국토위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철도산업정책토론회에서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대를 주도하려면 코레일과 SR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 9月 천연가스 184만톤 판매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9월 천연가스 판매량이 1840천 톤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경쟁연료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에 따른 산업용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90만1000톤 대비 5.1% 증가한 94만7000톤, 발전용 천연

가스는 총발전량 증가 및 기저발전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78만9000톤 대비 13.2% 오른 89만3000톤을 각각 기록했다.

발전용 판매량은 2017년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조선·車 불황 ‘군산’서 전통시장 축제 개최

중기벤처부, 새만금컨벤션센터서

조선·자동차산업 불황 여파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북 군산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산인 간 교류 촉진을 위해 ‘2018 전국우수 시장박람회’를 12일부터 사흘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박람회는 관람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전통시장 최대 축제행사다.

올해는 ‘전통시장, 이제는 혁신의 주체’라는 슬로건으로 각 지역 전통시장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해 청년상인 육성, 특성화시장 등 현재상을 보여주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미래 모습도 제시한다.

이번 박람회에선 전국 140여 곳이 참여해 전통시장관 80개, 팔도먹거리장터 23개, 청년상인존 40여개 등 150여개의 전

시·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전통시장관에선 전국 5개 권역별 주요 전통시장의 특화상품,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하고 세일 판매도 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청년상인존에선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승부하는 청년상인들의 성공 이야기와 K팝, 버스킹, 디제이 등 젊은 감성의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상인들이 ‘청춘 야시장’을 개설한다.

중기부는 이번 박람회는 처음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상인들이 대규모로 참가해 오후 10시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12일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88명에게 포상한다. 이번에 김영오(66) 대구서문시장 상인회장이 석탑산업 훈장을, 장배근(60) 안양남부시장 상인회 이사가 산업포장, 주상옥(68) 목표자 유시장 상인회장이 대통령표창을 각각 받는다.

/김승호 기자 bada@

## 해양진흥公, LNG선 등 1400억 보증

친환경 건조사업에 160억 투자도

S&LB 등 지속적 중소선사 육성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사 설립 이후 진행했던 각종 사업들의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해운재 건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업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사 설립 이전부터 S&LB(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 선박 신조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공사 설립 이후 선사와의 지원조건 등 협

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공사는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A 신용등급을 획득했으며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분야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는 친환경 LNG 선박 건조 등 선사의 신규 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4개 선사에 138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정부 보조금과 함께 160억 원 규모의 후순

위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7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S&L B 등을 통해 57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7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S &LB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선사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한국 해운의 재건을 위해서는 건실한 중소선사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가 긴밀히 협의해 해운재건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장애인고용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역량강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분야의 최고 장애인 강사를 만들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중증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 강사직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

한 강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해 실시한다.

이 과정은 교안작성 능력, 연설 기술 등 강의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후에도 현장 강의 모니터링과 리뷰를 통해 강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정주 공단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은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의현장에

서의 요구를 중심으로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를 반영해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여성·장년·청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업영역개발사업을 펼쳐왔다.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청각장애인 네일아티스트, 발달장애인 편의점스태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등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 국내기업, 업무방식에 문제 있다

### 고민·소통없는 ‘리더십’이 근본원인

‘스마트워크’를 외치는 국내기업의 업무방식은 여전히 스마트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업무방식 실태 보고서’를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했다.

상장사 직장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업무방식 실태와 직장인 및 전문가 인터뷰로 도출한 해법도 담았다.

직장인들은 국내기업 업무방식 종합점

수를 100점 만점에 45점으로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업무 방향성 30점, 지시 명확성 39점, 추진 자율성 37점, 과정 효율성 45점으로 모두 50점 이하다. 국내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의미다.

업무과정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으로 ‘원래부터 의미없는 업무’(50.9%)라는 대답이 첫번째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문화는 분위기나 복리후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그 자체다”며 “여전히 구시대적인 지금의 업

무방식으로는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심전심과 상명하복을 바라는 소통문화 역시 비합리적 업무방식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모호하게 지시해도 ‘척하면 척’ 알아야 하고, 질문하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통문화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나 업무과정 전반의 비효율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얼핏 보기에도 각 직급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의 원인은 일맥상통한다”면서 “이유(Why)에 대해 고민과 협의하지 않는 리더십과 ‘이유(Why)를 설명하거나 질문하지 않는 소통문화’가 근본원인이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안병도 기자